

英國經濟衰退의 諸原因에 관한 研究(其 I)

姜 命 圭

<目 次>

I. 머릿말
II. 英國經濟衰退의 歷史的 展開過程
1. 第一次大戰과 英國經濟(以上 本號掲載)
2. 第二次大戰과 英國經濟
III. 英國經濟衰退의 要因分析
1. 經濟剩餘
2. 經濟構造
IV. 結論(以上 次號掲載豫定)

I. 머릿말

1964年 가을에 있었던 總選舉에서 勞動黨黨首 Wilson 이 「새로운 英國을 建設하기 위해 서 勞動黨과 더불어」라는 標語와 함께 當時까지의 保守黨政權의 「Stop and Go 政策」에 대해서 맹렬한 非難을 퍼부은 것은 아직도 우리 귀에 새로운 바가 있다. 그리하여 Wilson 은 保守黨政權이 長期에 걸친 執權에도 不拘하고 英國經濟로 하여금 dynamic하고도 均衡있는 成長을 이룩하여 인플레이션을 適切히 抑制하는데 失敗한 사실에 非難을 集中하였던 것이다. 이는 實로 當然하다면 너무나 當然한 批判이었는데 오늘날 한번 機會를 달라고 그처럼 呼訴하던 Wilson 自身이 執權 3年餘만에 同一한 批判을 英國國民으로부터 받게 된 現實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英國經濟가 應急的 治療나 短期的 政策만으로는 좀처럼 救濟되기 어려운 停滯性을 內包하고 있는 까닭이라는 데에 사실상 누구도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몇가지 指標을 찾아 보면 이 사실이 明白해진다.

첫째로 實質國民生産으로 測定한 經濟成長率을 살펴 본다면 1959年 내지 1964年 사이의 5個年間の 年平均 成長率이 겨우 3.9%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가령 西獨은 同期間에

이 論文은 筆者가 1966年度 British Council Scholarship 으로 英國 Cambridge 大學에 修學當時 所定課程以外에 關心을 가지고 틈틈이 note 해 두었던 것을 간추린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特別 資料面에서 缺陷이 많다는 點을 附記한다. 短期間이지만 些少한 일에까지 各種便宜를 提供해 준 British Council 과 Cambridge 大學 政經學部 및 同 Marshall Library 의 厚意에 대하여 紙面을 통해 感謝한다.

5.5%, 佛蘭西는 5.4%, 伊太利는 6.2%로서 西歐主要國家中에서도 英國이 最低의 成長率인 것이다.⁽¹⁾ 一國의 經濟成長率이 勞動人口와 生産性에 依存한다고 보면 英國의 勞動力은 1975년까지 年間 平均 1%弱정도 밖에는 增加하지 않을 것으로 豫測되고 있는 만큼 英國의 經濟成長은 生産性的의 向上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만일 年間 3.9%의 實質成長目標를 達成하려고 할 때는 生産性을 그만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過去 10年間に 英國의 生産性은 年平均 1人1時間當 3%정도의 向上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다른 어느 主要國보다도 낮은 率인 것이다.⁽²⁾

이와 같은 低生産性的의 原因에 關해서 「런던·에코노미스트」誌는 그 主要因으로서 投資와 收益의 過少를 指摘한 적이 있다.⁽³⁾ 즉 1955年에서 1964年사이의 平均値로 GNP 中 投資比率은 西獨이 23.7%, 佛蘭西가 19.2%, 伊太利가 21.6%인데 비하여 英國의 그것은 15.8%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投資單位當의 產出量을 100파운드의 投資에서 얻어지는 附加產出量으로 측정해 볼 때 上記期間平均으로 西獨 26파운드, 佛蘭西 27파운드, 伊太利 26 파운드인데 비하여 英國은 20파운드의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事實은 그 당연한 歸結로 1人當 國民所得의 低位에 의해서도 反映되고 있다. 즉 1964年의 1人當 國民所得의 比較로 보면 英國은 1,355달러인데 대하여 西獨은 1,408달러 佛蘭西는 1,360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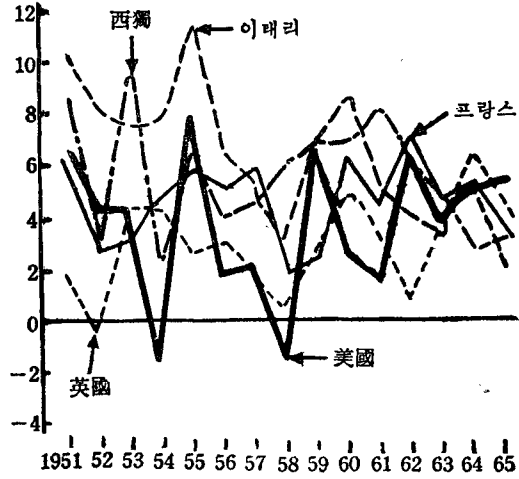
다음에 世界輸出市場에서의 占有比率을 보더라도 1938年에 美國의 14.5%에 이어 英國이 11.4%로서 第2位를 占하던 것이 1964년에는 美國의 16.3% 다음에 西獨이 10.7%로 三位에 올라섰는데 英國의 그것은 8.1%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Wilson이 政權을 保守黨政府로부터 引受하던 當時의 英國의 國際收支는 極度로 惡化되어 있어 年間の 赤字가 事實상 8億파운드에 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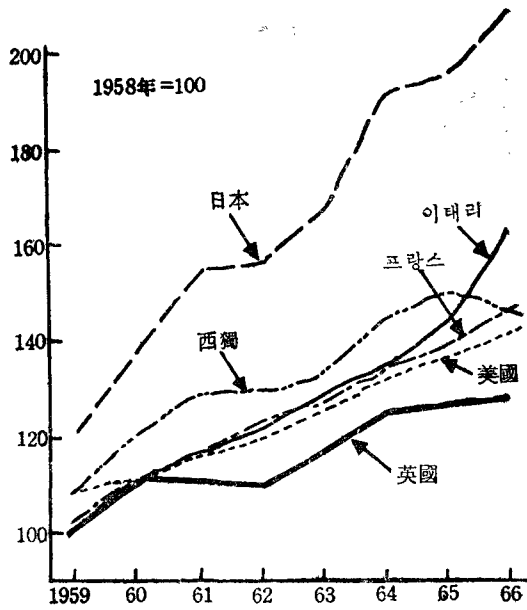
이렇게 보아 오면 몇가지 指標만으로도 일손執權下에서조차 勞動黨政府가 그 公約에서 提示한 「새로운 英國」의 建設은 요원하다고 斷定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오늘날 英國經濟는 특히 1967年 11月の 파운드貨平價切下를 轉機로 이를 不可避하게 한 背景과 더불어 極端의 凋落相을 露呈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往年에 名實共히 「世界의 工場」으로서 産業革命과 工業化過程의 모델로서 世界經濟에 君臨하던 英國經濟의 이와 같은 沒落 과정에 關해서는 여러가지 診斷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第1次 世界大戰以後의 英國經濟의 展開過程을 分析함으로써 그 停滯要因을 長期的·歷史的 視角에서 檢出해 낼

(1) Angus Maddison, *Economic Growth in the West*, 1964, chapt. 1 과 國聯統計資料에 의하여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主要國의 經濟成長率(實質)



(2) 註 (1)과 같은 資料에 의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勞動生産性의 比較



(3) *The Economist*, Oct. 1966.

으로써 先進老成經濟로서의 英國經濟를 理解하는 出發點으로 삼고자 한다.⁽⁴⁾

II. 英國經濟衰退의 歷史的 展開過程

1. 第1次大戰과 英國經濟

지금으로부터 100餘年前인 1866 年에 英國經濟學者 「제본스」(Stanley Jevons)는 當時의 英國經濟의 모습을 아래와 같은 有名한 文句로 表現한 바가 있다. “北「아메리카」와 「러시아」의 平原은 우리들의 穀食밭이다. 「시카고」와 「오랫사」는 우리의 穀倉이며 「캐나다」와 「발틱」 沿岸地方은 우리들의 森林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 羊을 위한 牧場이며 南「아프리카」에서는 우리의 畜牛가 飼育되고 있다. 「페루」는 그 나라의 銀을 보내오고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숲이 「런던」으로 흘러들어 온다. 中國人은 우리를 위해서 茶를 栽培하며 커피, 砂糖, 香料는 東인도의 栽培地로부터 보내온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우리들의 포도밭이며 地中海沿岸은 우리의 果樹園이다. 한때 「아메리카」南部에 獨

(4) 英國經濟의 低成長과 停滯의 原因에 관해서는 오늘날 大體로 세가지 部類의 見解가 흐르고 있는데 經濟政策의 失敗에 主原因이 있다고 보고 들제는 英國社會의 停滯性을 強調하며 셋째는 英國經濟가 發展段階에서보아 이미 老化되었으므로 不可避하다고 보는 論點이다.

第2의 見解는 英國의 良心이라고 하는 *The Times*가 1966年 3月 10日 社說에서 衝擊的으로 提示한 以外에 Joan Robinson, *Economics: An Awkward Corner*, 1966등에 의해서 支持되고, 第3의 見解는 Cambridge 大學의 Nicholas Kaldor 教授에 의해서 主張되고 있다.

지금 Kaldor 教授의 見解를 잠간 紹介하면 同教授는 1966年에 「英國經濟의 早期成熟」이란 題下의 Cambridge 大學正教授就任公開講義에서 英國經濟를 要旨 아래와 같이 診斷했다. 一 즉 英國은 다른 어느 國家보다도 早期에 工業化를 開始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이 成熟段階에 到達했다. 즉 英國은 第1次, 第2次, 第3次 產業部門間에 勞動力의 分配가 完成되어 버렸기 때문에 製造工業은 必要한 勞動力을 他部門으로부터 引出할 수 없게 되었다. 往年의 高度成長은 製造業에 있어서 充分한 勞動力이 入手되지 않는 限 어떤 手段으로도 維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勞動力不足을 救濟하는 源泉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技術革新에 의해서 製造工業에 必要한 勞働量을 減少시켜 工業雇傭人口를 減少시켜도 急速한 成長을 達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徵兆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技術이 가장 高度화된 美國에서조차 最近의 工業成長이 아직도 失業의 減少, 즉 雇傭의 增加와 結付되어 있는 것이다. 第2의 源泉은 規模의 經濟로부터 利益을 얻는 方法이다. 그것은 英國의 製造工業全體의 成長에 의한 것이다. 國際特化的 推進에 의하여 가령 英國의 資源을 少數의 몇개分野에 集中하여 餘他部門을 放棄함으로써 換言하면 英國產業의 他國產業에 대한 相互依存性을 높임으로써 勞動力을 合理的으로 使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理論이 現實의 政策運營에 密着되어 있는 Kaldor 教授의 所論은 一種의 「宿命論」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第2의 見解를 強調하는 *The Times* 등의 「精神論」이 맞았다. 즉 *The Times*는 즉각 Kaldor 教授의 理論에 異議를 提起하여 成長問題를 經濟發展段階라는 見地에서 處理하는 것은 一理가 있겠으나 그렇다면 그것은 英國의 貧弱한 經濟的 業績에 아무도 責任이 없다는 結論이 되어 버리는데 이는 아무런 價値가 없는 말인 것이다. 問題는 英國經濟의 低成長에 責任을 질 者는 經營者, 勞動組合, 또는 英國의 教育制度, 英國社會의 競爭에 대한 態度 그렇지 않으면 非能率의인 投資 아니면 無能한 政府中 어느 누구인가하는 點이라고 하여 英國社會의 停滯性을 파고 들러 한다.

現地에서 問題意識의 一端을 紹介했거니와 本論文에서는 英國에서 이처럼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는 特定한 理論的 視角에 立脚하기 보다는 忠實한 史實의 追求를 第1次的 課題로 삼고 있음을 強調하여 둔다.

占되어 있던 棉花栽培地는 지금은 地球上 어느 곳이나 存在한다.”⁽⁵⁾

이처럼 當時의 英國工業은 世界工業生産의 1/2 내지 1/3을 占했고 그 貿易은 世界貿易總額의 1/4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英國은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榮光의 자리에서 오늘날의 비참한 境地에 沒落하고 말았는가?

앞서 「제본스」가 論述한 바와 같은 英國의 世界經濟上의 獨占의 地位는 이미 19世紀의 마지막 四半期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獨逸과 美國이 有力한 競爭者로 登場한 것이다. 즉 이 兩國은 保護關稅의 政策的 手段에 의하여 先進英國의 工業的壓力으로부터 自國産業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自國工業이 國內需要를 充足하게 되면서 海外에 進出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이 두 나라는 英國이 도달한 水準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國內産業의 團結이 필요했으므로 企業集中 및 集積이 스스로 強調되어 그 産業組織은 英國의 그것보다 훨씬 合理化되고 近代의이었다. 資本의 集中 및 集積의 程度 즉 칼텔이나 트리스트의 發展이라든가 産業에 대한 金融支配의 程度에서 보면 오히려 獨逸과 美國이 資本主義的 發展의 典型國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두나라의 工業化는 그 發展의 Tempo에 있어서도 英國의 그것을 능가하여 이미 20世紀初에는 世界工業總生産의 首位는 美國이 차지하게 되고 英國은 世界生産의 1/3로 떨어진다. 또한 英國의 世界貿易上의 地位도 이 時期에 低下하고 있다. 즉 1870년대지 1900년의 30年間の 國民所得은 12億파운드에서 17億파운드로 증가하고 1人當所得도 10% 정도의 증가가 있었는데도 1人當의 貿易額은 오히려 減少하고 있는 것이다.⁽⁶⁾

元來 英國의 世界貿易上의 繁榮은 綿業과 石炭業, 그리고 重工業의 三大支柱에 依存하였던 것인데 이 무렵부터 이들 支柱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Lancashire의 綿業은 自由무역의 口號下에 印度를 비롯하여 「모록코」, 中國과 日本에 이르기까지 工業發展에 뒤떨어진 地域에 侵入하였었다. 그러나 이 넓은 市場性을 갖는 大衆商品은 그 生産에 資本과 專門技術을 要求하는 程度가 낮았으므로 손쉽게 日本이나 印度등 後進國에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英國은 輸出貿易의 第一의 支柱를 喪失한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한편 英國産業의 發達は 그 豊富한 石炭資源에도 크게 依存하고 있었으며 19世紀에는 石炭產地가 英國工業의 中心地帶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英國의 石炭獨占이 흔들리게 되면 英國貿易의 繁榮도 어느 정도 阻止되게 마련이다. 더구나 이 徵兆는 이미 前世紀後半期

(5) Stanley W. Jevons, *The Coal Question*, 3 ed., London, 1906, p. 411.

(6) J.A. Hobson, *Imperialism*, 3ed., London, 1938, p. 31.; C.P. Kindleberger,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0—1950*, 1964, p. 271.; Sidney Pollard,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Economy, 1914—1950*, Lodon, 1962, pp. 184—185.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獨逸과 美國의 産業이 勃興期에 있던 1868年 내지 70年の 石炭의 世界生産量은 1億3,000萬톤으로서 그중 英國이 8,000萬톤을 占하고 있었으나 獨逸의 그것은 1,200萬톤 美國은 1,400萬톤이던 것이 이때부터 漸次 石炭生産國으로서의 英國의 地位가 相對的으로 低下되기 시작하였다. 雪上加霜으로 石油와 水力電氣가 石炭의 領域을 蠶食하면서부터 英國은 이 두 資源을 갖지 못한 關係로 石炭에 의한 優位도 後退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新興諸國으로부터의 競爭에 英國이 全然 손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독일과 美國의 鐵鋼業의 發達로 英國의 鐵鋼輸出이 減少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그 加工段階를 높여 새로운 合金鐵 또는 各種의 新規鐵鋼製品을 發明함으로써 機械類輸出의 길을 開拓해 갔다. 이때문에 1880年以後는 Birmingham이 英國貿易政策의 中心地로 되고 機械類의 輸出이 英國의 外貨收入에 不可缺한 要素가 되었다. 機械類의 輸出은 이를 수입하는 諸外國의 鐵道, 港灣 및 工場등의 建設을 前提로 하며 이는 또 이들 地域에서의 英國의 政治的 勢力의 增大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英國以外的 新興工業國과의 衝突을 不可避하게 하였으니 그 理由는 發達된 工業製品을 위한 海外市場을 求하고 必要한 原料品の 確保를 위해서 이들 新興諸國도 植民地의 獲得을 必要로 했기 때문이다.

Hobson은 1870年은 意識的인 帝國主義政策이 開始된 해로 規定하고 있는데⁽⁷⁾ 그 다음 해인 1871年은 普佛戰爭이 獨逸의 勝利로 끝난 해이다. 이 戰爭의 결과 건설된 獨逸帝國이 植民地分割에 參加하면서 그 優秀한 製品은 英國植民地에까지 浸透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은 英國의 對植民地貿易의 比率低下傾向에서 看取할 수 있다. 즉 1866年에서 67年에 이르는 英國의 對外貿易額中 植民地의 占有比率은 輸出에서는 39.1% 輸入에서는 57.1%이던 것이 1896年 내지 99年에는 이 關係가 32.5% 및 34.9%로 大幅 低下되고 있다.⁽⁸⁾

前記한 바처럼 Hobson이 意識的 帝國主義의 端緒로 規定한 1870年以後 英國의 植民地는 「아프리카」의 分割을 爲始하여 현저히 擴大함으로써 15年間에 375萬平方마일의 地域이 새로이 英國領土에 加算되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帝國主義的 膨脹은 英國의 植民地貿易에 보탬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⁹⁾

그뿐만 아니라 英國의 海外貿易에 의한 利益 그 自體가 低下한 點도 注目해야 한다. 海外膨脹政策에서 歐美諸國의 參加는 英國의 植民政策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支出과 보다

(7) Hobson, *op. cit.*, p. 33.

(8) S.B. Saul, *Studies in British Overseas Trade, 1870-1914*, 1960. Chapt. XV.

(9) Hobson, *op. cit.*, p. 33.

적은 收益을 가져오게 함으로서 貿易上の 利益은 資本輸出에 의해서 支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重工業製品을 輸出하기 위해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植民地에서 鐵道, 港灣 및 公共事業과 같은 建設事業을 振興시킴으로써 人爲的으로 購買力을 造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植民地에는 이러한 社會間接資本을 조달할 만큼 富가 蓄積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多幸히도 英國은 自國의 貿易을 지키기에 充分하리 만큼의 巨大한 資本蓄積이 있었던 것이다.⁽¹⁰⁾

그러면서도 植民地에 있어서의 새로운 建設活動과 그에 의한 植民地의 經濟開發이 英國의 建設資材의 輸出 및 多額의 資本輸出을 促進하고 이로써 資本財輸出과 資本輸出의 聯關의 展開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 原料供給地로서의 植民地의 機能은 相當히 後退된다. 母國에 대한 原料品輸出이 實現되는 것은 鐵道나 港灣등의 建設에 의하며 植民地가 大規模의 原料生産地域이 되고 建設事業에 投資한 金融資本이 植民地로부터의 原料供給에 對해서도 賃金を 供給하고 이로써 植民事業을 獨占하게 되면서부터의 일이다.⁽¹¹⁾ 그러나 이런 경우도 資本主義諸國에 의한 新市場과 新利權의 獲得競爭이 치열해지고 植民地獲得에의 努力이 到處에서 衝突하게 되면 제아무리 特惠的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하더라도 獨占市場의 完全한 保持는 困難하게 되고 商品輸出의 無制限한 增大가 不可能하게 되어 오히려 植民地로부터의 輸入增加가 顯著的 現象으로 나타나며 母國의 貿易은 一般的으로 逆調를 示顯하게 된다. 즉 植民地其他의 後進地域의 購買力을 造出하는 手段으로 利用되던 海外投資 그 自體가 오히려 母國의 貿易을 逆調化시키고 그때문에 이를 補填할 必要에서 점점 더 旺盛한 海外投資活動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第1次大戰前夜의 英國은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1

그러면 第1次大戰의 經濟的 結果는 英國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자. 英國은 戰爭에는 물론 勝利했으나 스스로 입은 打擊도 역시 甚大했다. 熱狂的인 戰後붐을 얼마간 經驗한 후 1920年末에 英國은 經濟的 破局에 直面했다. André Siegfried가 말하는 바와 같이 1920—21年 및 1929年의 두차례의 恐慌을 거치면서 英國의 每年의 統計는 “無慈悲한 近代의 使者”⁽¹²⁾로서 그 市場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英國의 産業機構가 根本的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英國은 그후 한번도 戰前의 힘찬 모습을 되찾을 수

(10) S.B. Saul, *op. cit.*, Chapt. IV.

(11) M.P. Price, *The Economic Problems of Europe*, London, 1928, p. 21.

(12) A. Siegfried, *La Crise Britannique au XXe Siècle*, 4^e éd., Paris, 1932, p. 22.

없었다. 以下에서는 앞서 본 19世紀 自由放任主義의 破綻에서 온 打擊에 이어 英國經濟衰退過程에 迫車를 加한 第1次大戰의 經濟的 歸結을 概觀하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은 產業構造의 變化에서 나타났다. 戰時中 龍大한 戰爭需要에 應하기 위하여 重化學工業은 大幅 그 生産規模가 擴大되는 同時에 外國으로부터의 競爭 壓力에 의해서 伸長을 阻止當해 오던 一部産業이 輸入杜絶로 振興된 反面에 軍需에 直接 活用되지 않는 産業은 그 發展을 阻止當한 것이다.

첫째의 경우에 該當한 部門은 鐵鋼業, 機械工業 및 化學工業등이며 둘째의 경우에 드는 代表的 事例는 유리工業이다. 後者の 경우 1914年以前에는 英國의 光學用유리는 一地方企業에 不過하여 그 供給은 主로 獨逸에 依存하는 形便이던 것이 그 輸入杜絶로 國內유리工業이 急速히 發達하였다.⁽¹³⁾

셋째의 例를 代表하는 것은 綿業이다. 綿業은 第1次大戰까지는 英國의 輸出産業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는데 戰爭을 契機로 萎縮된 것이다. 물론 綿業에 있어서도 약간의 軍需가 있었고 聯合軍側에 대한 供給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當初에는 原棉의 스톡크도 多少 存在했던 만큼 戰爭初期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戰爭의 長期化와 더불어 船舶不足으로 原棉의 美國으로부터의 輸送이 抑制되면서 1917年 여름부터 原棉不足이 急迫해지고 따라서 綿業은 危機에 빠진다. 이에 戰前에 綿業은 餘他工業國에서도 發達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戰時中의 英國綿業의 不振은 東洋諸國 특히 日本의 綿業을 刺戟했기 때문에 戰爭이 끝났을 때 英國綿業은 自己市場이 현저히 좁아져 있는 事實에 直面하게 되었다. 즉 世界の 原棉消費高는 1924—25년에는 1912—13年과 거의 同額이었는데 英國이 占하는 比率은 19%에서 14%로 떨어졌다.⁽¹⁴⁾

그런데 문제는 戰時中에 擴大된 첫째 및 둘째의 範疇에 屬하는 産業들도 戰爭直後에 바로 不振狀을 들어낸 點이다. 우선 鐵鋼業을 보면 그 生産擴大는 生産能率의 向上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明白하다. 즉 從業員 1人當 銑鐵生産高는 1913年の 350톤에서 1920年の 226톤으로 粗鋼生産高는 同期間에 79톤에서 59톤으로 低下했다.

또한 1919年の 調査에 의하면 25炭鐵鋼會社中 垂直的인 一貫經營이 施行되는 企業은 9個會社에 不過하고 나머지 12個會社는 溶鑪 뿐이며 餘他 4個會社는 製鋼工場만을 運營하였다.⁽¹⁵⁾

(13) S. Pollard, *op. cit.*, p. 105.

(14) S. Pollard, *ibid.*, pp. 120—124.

(15) S. Pollard, *ibid.*, pp. 114—116.

한편 機械工業에 있어서도 이와 同一한 非能率이 들어나 있다. 가령 自動車工業에 관해서 보면 戰時中 追加設備가 계속되었는데 車體工場과 部品工場의 施設는 輕視되었기 때문에 全體로서의 自動車工業 그 自體는 均衡을 잃은 것이다. 그리하여 均衡을 回復하기 위해서 多額의 經費를 必要로 했으나 이는 곧 借入金을 累增시키고 企業利潤을 低下시켰다.

이리하여 戰爭은 英國産業構造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으나 總體的으로 보아 戰時中에 伸長한 諸産業은 戰後에는 그 繁榮을 維持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다음에 英國의 國富가 그 旺盛한 海外經濟活動에 立脚한 바가 많았는데 이 面에 대해서는 1次大戰이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첫째 輸出貿易은 諸國間的 國境閉鎖, 平常의인 交易過程의 變質, 需要品の 質的變化, 船舶不足등에 의한 國際去來의 混亂으로 크게 萎縮된 것은 물론이다. 戰爭直後에도 混亂으로부터의 完全한 回復이 容易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大陸諸國의 貧困化, 通貨의 混亂, 關稅障壁등의 諸原因으로 英國의 輸出은 좀처럼 回復이 어려웠다. 즉 1913年の 英國 輸出額은 5億2,500萬파운드이며 1923年은 7億4,400萬파운드인데 經常價値基準이므로 이 동안의 貨幣價値低落 60%를 감안하여 1932年の 輸出額을 1913年價格으로 換算하면 겨우 4億9,700萬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¹⁶⁾

다음에 海外投資에 대한 戰爭의 影響은 어떠한가? *Economist* 誌에 의하면 1913年の 英國의 海外投資는 39億7,200萬파운드에 達하고 이에 依하여 英國은 年間 약 1億파운드의 收入을 얻고 있었는데 戰時에 그中 약 8億5,000萬파운드가 戰費調達 및 其他用途로 消失되었기 때문에 그 收入도 激減하게 되었다. 海運에 관해서도 英國은 많은 船舶을 戰時에 잃게 되어 直接的인 汽船의 喪失하나만으로도 40%의 타격을 받게 되어 終戰時 英國의 保有船舶噸數는 戰前에 比하여 300萬噸이나 減少되고 있다.

지금 또 하나의 戰爭에 의한 經濟的 惡化는 國民所得의 分配上으로 나타나 있다.⁽¹⁷⁾ 英國의 國民所得은 1913年과 1924年을 比較할 때 名目上 약 2倍의 增加로 나타나지만 經濟學者의 計算에 의하면 這間의 人口增加 7%와 80%의 物價騰貴를 고려에 넣는다면 兩者는

(16) S. Pollard, *ibid.*, pp. 188—189.

國民總生産에 대한 輸出比		國民所得에 대한 輸入比	
1907	33%	1913	31%
1924	27%	1929	25%
1938	15%	1938	16%

資料: W.A. Lewis, *Economic Survey 1919—1939* (1949), pp. 82, 85.

(17) P. Deane & W.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1964, pp. 243, 244.

거의 同額이 된다. 여기서 國民所得分配의 形態를 보면 戰前에 比하여 戰後에는 高額所得者의 減收와 小額所得者의 增收로서 나타나 있다. 즉 1914년에는 1萬파운드以上の 高額所得者는 5,000名이었으나 1925년에는 4,120名으로 減少되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의 物價騰貴를 考慮에 넣을때 1914年の 1萬파운드는 1925년에는 1萬8,000파운드에 相當하므로 實質所得 1萬8,000파운드를 벌기위해서는 1925年價格으로는 3萬파운드의 總所得을 必要로 했으나 이만큼의 高額所得者는 1,300名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高額所得者가 減少한 것은 主로 戰時中에 實施된 特別利得稅에 의한 影響이 컸다. 이 特別利得稅는 1914년에는 年收 5,000파운드 以上の 一切의 所得에 課해지고 稅率은 1파운드當 6펜스였는데 1924년에는 2,000파운드 以上の 所得을 對象으로 하고 稅率도 引上되었다. 한편 戰時中의 賃金調整은 小額所得者의 收入을 증가시켰는데 같은 勞動者라 해도 熟練勞動者는 1924년까지는 勞動時間의 短縮以外에는 附加所得이 없는데 反하여 未熟練勞動者의 賃金收入은 증가하는 傾向이 있었다.

以上の 結論으로서 租稅 및 物價變動을 考慮에 넣을 때 最高所得層의 所得은 戰前의 折半以下로 떨어졌는데 反하여 最低所得層의 그것은 大幅 增加하고 그 兩極端의 中間層의 所得에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所得分配의 變化가 英國經濟에 미친 影響이다. 한편에서는 高額所得者의 減少가 貯蓄減少를 가져온 것은 물론이지만 小額所得者의 貯蓄能力의 增加는 이를 카버하지 못했으므로 新資本形成에 不利한 影響을 미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 他方에서는 小額所得層의 所得增加는 主로 賃金引上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코스트高의 原因을 이루었다. 그 一例를 石炭產業에서 보면 1913年の 石炭生産費用에서 차지하는 賃金費 100에 대해서 1925年の 그것은 185로 되어 있다. 이는 程度의 差는 있을망정 거의 모든 產業에 共通된 현상이었다.

2

周知하는 바와 같이 英國經濟는 第1次大戰에 의한 不利한 經濟的 遺産에 뒤이어 계속된 經濟政策의 失敗⁽¹⁸⁾와 世界經濟恐慌에 의한 打擊으로 因하여 그후의 戰後發展은 總體의 으로 衰退의 過程이라도 해도 過言이 아닌 歷史를 갖는다. 여기서 그 衰退의 樣相을 國內 主要產業別과 海外經濟活動으로 나누어 概觀하기로 하자.

戰後英國經濟의 衰退는 英國產業의 三大支柱인 炭鑛業, 綿業 및 重工業에서 나타난다함

(18) 이에 관해서는 다음 諸著를 參照. S. Pollard. *ibid.*, pp. 214—223.; J.M. Keynes, *Essays in Persuation*, London, 1931, pp.246—55; A. J. Youngson, *The British Economy, 1920—1957*, London, 1960, p.81.

은 前述한 바와 같다.

1. 炭鑛業——炭鑛業에 관해서 보면 出炭高단 보더라도 1913년의 2億8,700萬톤에서 1925년에 2億4,300萬톤, 1931년에는 2億1,900萬톤으로 減少하고 戰後景氣回復期인 1967년에 조차 2億4,100萬톤에 不過하다. 炭鑛勞動者에 관해서도 1920년의 失業者는 餘他諸産業의 그것이 16%였는데 비하여 炭鑛業의 경우는 近 22%에 達한다.

이와 같은 炭鑛業의 不振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原因이 指摘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첫째로 손꼽히는 것은 燃料 및 動力源으로서 石炭爲主이던 것이 가스, 石油, 電力등으로 轉換되고 또 其他 熱經濟의 進歩가 炭鑛業의 發達을 阻止하고 있던 點이다. 그런데 戰後 餘他 歐洲諸國의 石炭生産은 總體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며 英國自體도 石炭消費는 물론 低下하고 있으나 그렇게 大端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第1次大戰後 英國炭鑛業의 不振은 輸出市場의 狹隘化에 하나의 原因을 求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英國의 石炭輸出은 1909—13년의 年平均 65,521千톤 이던 것이 1924年 61,651千톤, 1929年 60,267千톤, 1937年 40,380千톤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은 英國石炭輸出의 減少는 主로 獨逸 및 「스칸디나비아」諸國에의 輸出減退에 起因한 것인데 그것은 한편 독일 採炭能力의 向上과 그에 의한 英國炭 海外市場의 侵蝕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밖에도 第3의 原因이 作用하고 있으니 그것은 英國石炭의 生産費騰貴이다.

英國石炭의 코스트高에 관해서는 그 直接的 原因으로서 戰時中 및 終戰直後의 暴騰에 있어서의 亂掘이 指摘되고 있다. 이것이 生産能率을 低下시키는 同時에 生産費의 騰貴에도 作用한 것이다. 물론 그러나 보다 큰 本質的 原因은 生産組織 그자체의 缺陷에 있었다. 그것은 이미 1926년의 Samuel 委員會의 報告에 明示되어 있다.⁽¹⁹⁾

이에 의하면 1924年에도 炭鑛企業數는 1,400 그 坑數는 2,500에 達했는데 그중 從業員 100 乃至 500名의 小企業이 567, 從業員 500 乃至 1,000名의 中企業이 467個나 存在한다. 더우기 이들의 總石炭生産高中의 占有化는 各己 5%와 9%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小規模企業의 存在가 英國炭鑛業의 合理化와 近代化를 妨害한 것은 分명한 일이다. 더구나 英國企業家는 그 經營性 때문에 歐洲大陸諸國의 經驗이나 專門委員會의 報告를 귀담아 들지 않고 戰後의 新事態에 適應하기 위한 事業體의 再組織을 소홀히 하였다.⁽²⁰⁾ 즉 採算上 當然히 閉鎖하여야 될 老朽炭鑛이 如前히 經營을 續行하고 對外競爭의 見地에 立脚한

(19)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f Coal Industry*, London, 1926, p. 45.; S. Pollard, *op. cit.*, pp. 110—113.

(20) S. Pollard, *ibid.*, p. 111.

生産 및 販賣協定같은 것에도 神經을 쓰지 않고 企業亂立의 狀態로 放置되어 있었다.

한편 이러한 小規模炭鑛의 存在는 主體로서의 英國炭鑛業의 機械化를 妨害했다. 물론 戰後英國에 있어서도 技術改善과 機械化促進에 의한 生産費切減을 위한 努力이 없던 것은 아니다. 즉 英國의 石炭總生産高中 機械制에 의한 比率이 1925年の 20%에 比하여 1929년에는 28%, 1934年은 47%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比較하여 美國에서는 1929년에 總生産量의 75%가 機械生産이었으며, 獨逸「루르」地方의 그것은 1913年の 2%에서 1928年の 85%로 急上昇하였다. 以上과 같은 諸事情이 生産能率에 크게 影響을 미친 것은 當然하다. 이와 反對로 炭鑛勞動者의 賃金은 아래와 같이 餘他の 歐洲諸國보다 높아져 있다.

販賣炭 噸當 賃金比較 (1935年基準)⁽²¹⁾
(英國=100)

「폴란드」	42
「벨기에」	71
獨逸	88
英國	100
美國	130

즉 「폴란드」같은 나라는 英國의 折半에 不過하고 獨逸의 그것도 英國보다는 낮다. 더구나 注目할 事實은 독일炭鑛勞動者의 賃金이 독일勞動者中에서도 相對的으로 높는데 反하여 英國炭鑛勞動者의 그것은 英國勞動者中에서 낮은 편에 屬한다는 點이다. 炭鑛業이 英國에서도 가장 激烈한 勞資對立의 溫床인 것은 이 事實에 근거한 것으로서 1926년에 絶頂에 達한 炭鑛爭議야 말로 이의 爆發이었다.

以上과 같은 諸原因의 累積이 英國炭鑛業의 衰退를 가져온 것인데 물론 이에 대하여 英國政府가 아무런 對策도 없이 放置한 것은 아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1925年の Samuel 報告를 爲始하여 자주 委員會를 設置하여 이에 의한 石炭問題의 調査 및 勸告가 行해졌다. 1930年の 炭鑛業法 및 1938年の 石炭法 같은 것은 모두 이들의 勸告案에 입각한 炭鑛問題 解決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英國炭鑛業에 있어 實際의 合理化 및 近代化는 第2次大戰後의 石炭國有化時까지 크게 進展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2. 綿業——1890年경까지는 英國綿業은 美國棉花生産의 40%以上을 消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 優位는 이미 戰前에 喪失되어 25%로 低下되고 있었으며 戰後에는 더욱 떨어져 15%로 되었고 1927年末에는 12.48%로 떨어졌다. 이는 비단 美國棉에 관해서

(21) International Labor Office, *The World Coal-mining Industry*, Geneva, 1933.

뿐만 아니라 其他産地의 各種棉花에 관해서도 같은 實情이었다. 그 결과로서 다른 綿絲布 生産 主要諸國의 錘數가 戰後 增加되고 있는데 反하여 英國의 그것은 거의 一定한데도 오히려 設備過剩조차 示顯하는 정도가 된다. 왜냐 하면 그 生産高는 1924年 乃至 1929年 사이에 6%가량의 減少이며 輸出에 있어서는 15%나 減少했다. 英國綿業은 이 期間에 世界 綿製品消費 增大의 機會를 利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924年의 輸出水準조차 維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²²⁾

이와 같은 英國綿業의 衰退原因은 一般的으로 前世紀後半以來 그 生産組織에 아무런 改善도 加하지 않은데 있다고 論하는 경우가 많다. 英國의 諸産業中에서도 특히 綿業은 自由競爭下에 放置된채 그 舊態가 戰後에도 그대로 踏襲되었다. 즉 英國에서는 綿業이 不當하게 分化되어 大部分이 特殊한 一部生産工程에 매달려 있는 小規模企業이 支配的이다. 즉 英國의 綿業은 原棉購入에서 製品販賣에 이르기까지의 工程이 적어도 다음의 6個部門으로 分化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가) Liverpool 棉花輸入業者 및 仲介業者, (나) 綿絲紡績業者, (다) 綿絲去來商 및 仲介業者, (라) 綿織造業者, (마) 製造完成業者, (바) 綿製品去來業者가 그것이다. 英國綿業關係者는 이 여섯가지 종류의 事業중 한가지에 그 事業의 範圍를 限定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좁은 範圍內에서도 業者는 下級 및 中級品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美國담당部門과 高級品을 取扱하는 「에집트」담당部門과로 갈라져 있었다.⁽²³⁾

以上은 두말할 것도 없이 原棉購入의 原價를 높이고 또 그 다음의 모든 生産工程에 있어서도 코스트高를 不可避하게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Lancashire 綿業의 衰退는 日本 綿業의 進出에 크게 影響을 끼쳤다는 것이 事實이다. 이에 관해서는 日本의 綿業이 低廉한 原棉의 使用, 優秀한 各種混合技術의 使用, 低貸金등의 힘이 크게 作用한 것도 사실 이겠으나 또 一部는 Lancashire 綿織企業의 缺陷에도 基因되고 있었다. 그것은 極東綿業委員會의 다음과 같은 報告에 의해서 明確히 알 수 있다. 즉 日本의 原棉輸入의 약 80%는 當時의 三大會社인 東洋棉花, 日本棉花 및 江商에 의해서 獨占되고 그 購入棉花는 日本의 錘數의 97%를 占하는 日本紡績聯合會加盟會에 供給된다. 이 方法에 의하여 日本의 紡績業者는 余他諸國의 業者에 比하여 3% 내지 5%정도 廉價로 原棉을 入手할 수가 있는 것이다.⁽²⁴⁾

그런데 이처럼 간단한 機能이 英國에서는 100의 Liverpool 原棉輸入業者와 720의 Manc-

(22) S. Pollard, *op. cit.*, p. 121.

(23) S. Pollard, *ibid.*, p. 122.

(24) British Economic Mission to the Far East, *Report on the Cotton Trade*, London, 1930-31, p. 85.

hester 棉花都賣商人들에게 分化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日本에서는 綿絲布生産도 極度로 集中되어 있어 鍾數 및 機械臺數로 判斷한다면 紡績칼텔에 의해서 그 生産의 40 내지 60%가 獨占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事情下에 前記한 極東綿業委員會는 「日本과의 競争을 有利하게 하기 위해서는 個個 去來業者를 大組織으로 統合하고 大量의 스톡크를 保有하며 大量生産을 위해 大量注文에 應할 수 있도록 企業全體의 再編成을 要望했다.」⁽²⁵⁾

組織의 不良은 生産技術에도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친다. 一般의으로 綿業의 一次大戰後에 있어서의 技術的 進歩는 링紡績機, 自動織機 및 高速度捲返機의 採用으로 代表되었다. 이중에서 링에 관해서는 英國以外的 諸國 가령 日本, 印度 및 美國에서는 거의 全部가 mule 紡績織機로부터의 轉換이 이루어졌는데 反하여 Lancashire 에서는 겨우 一部밖에 轉換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織機에 관해서도 日本에서는 優秀한 自動織機로서의 豐田織機의 使用이 普及되어 있는데도 Lancashire 에서는 自動織機 및 半自動織機가 英國의 全能力의 3%에 不過하고 高速度捲返機에 이르러서는 거의 使用되지 못한 狀態였다. 이와 같은 事情을 보고 英國에서는 물론 綿業回復을 위한 가지가지 努力이 베풀어진 것이 사실이다. 가령 1929年의 綿業組織合同委員會에 의한 칼텔結成運動같은 것은 그 一例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英國綿業은 끝내 昔日의 恣態를 되살리지는 못하고 말았다.

3. 鐵鋼業——英國鐵鋼業도 다른 國家들보다 앞서 發達했다는 點에서 時間的인 利益을 享受하던 産業이다. 그런데 一次大戰前에 일찌기 그 世界鐵鋼業界에 있어서의 主導的 地位가 喪失되어 銑鐵生産은 1890年에 美國에 의해서 능가되고 1905년에는 獨逸에 의해서 능가되었으며 粗鋼生産은 1913年에 獨逸의 약 折半으로 下落하였다.

물론 鐵鋼業도 戰時中에 軍需를 위해서 擴張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生産費를 問題視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戰後에 와서는 對外競争力을 가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銑鐵部門에서는 戰後 纔껏 그 生産이 1913年의 1,030萬噸수준에 到達된 해가 없었다. 이에 反하여 粗鋼部門에서는 1929年에 1913年의 770萬噸을 능가하여 920萬噸을 1929년에는 當時까지의 最高記錄 960萬噸의 生産을 올렸다.

이처럼 銑鐵生産이 현저히 減退하고 있는데 反하여 粗鋼生産이 戰前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一部는 製鋼過程에 있어 scrap 使用이 높아진데 原因이 있다.

그러나 全體로서의 英國鐵鋼을 보면 余他産業部門에 比하여 合理化의 過程이 잘 進展된 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7年 내지 1929年間의 鐵鋼企業間의 合同이 빈번히 實現된 결과 1930년에는 英國鐵鋼生産의 약 70%가 20大會社에 의해서 生産되는 것이다.

(25) British Economic Mission, *ibid*, p, 19.

그러나 그럼에도不拘하고 다른 鐵鋼生産國과 比較하면 集中化의 程度가 훨씬 低位에 있어서 그 20大會社에 의한 粗鋼生産 700萬톤은 美國의 U.S.Steel 의 3分の 1에 不過하며 獨逸의 合同鐵鋼會社(Vereinigte Stahl-Werk) 一社의 規模와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工場設備 그 自體도 美國이나 獨逸의 것에 比하면 舊式이고 統一的이 못되었다. 즉 英國鐵鋼業은 設備에 있어서나 組織에 있어서나 近代의인 것이 적고 製鋼部門같은 것은 戰時中에 設備更新이 이루어졌음에도不拘하고 그 能率은 大陸諸國의 水準에는 未達이었으며 熔鑄爐같은 것은 加一層 非能率的이었다.

이처럼 英國鐵鋼業이 劣勢로 된 理由는 一部는 傳統的 因襲을 버리지 못한데 있으며 보다 根本的으로는 生産方法의 近代化 및 生産組織의 合理化에 뒤떨어진 데 있었다.

勿論 鐵鋼工業部門에서도 이를 是正하기 위한 努力이 소홀히 된 것은 아니고 合理化가 一部에서는 進展을 보고 있었다. 가령 企業合同을 보면 1932年以後부터 積極的으로 促進되었으며 또한 英國鐵鋼業의 復活에 크게 貢獻한 것으로 1929年에 鐵鋼業生産 및 利用의 促進을 目的으로 設立된 英國製鋼聯盟과 英國鐵鋼輸出聯盟의 誕生을 指摘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932年의 鐵鋼保護關稅의 實施와 함께 任命된 輸入關稅委員會의 提案에 立脚하여 個個의 群小組合 및 鐵鋼輸出聯盟등을 統一하여 生産統制를 期할 것을 目的으로 1934年에는 全國鐵鋼聯盟이 組織되었다. 이때부터 이에 準하여 鐵鋼關係 各種團體는 單獨으로 그 價格을 變更하거나 生産設備를 擴張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內鐵鋼業의 再組織이 이루어진 同時에 한편으로는 1935年에 英國鐵鋼業은 國際갈뎀에 加入함으로써 自國에의 鐵鋼輸入을 統制함과 아울러 協定國에 대하여 一定限度內의 英製鐵鋼輸出의 保障을 받았다.⁽²⁶⁾

以上の 諸努力은 모두 다음 發展段階에 대한 準備段階를 위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마침 國際政治上의 緊張이 發生한 것이 契機가 되어 1936년에는 英國도 再軍備에 들어서게 되자 鐵鋼은 눈부신 發展을 맞이하게 된다.

4. 造船業——두말할 것도 없이 英國은 海運國이었으므로 獨逸이나 美國등의 新興工業國으로부터의 競爭이 激化하기 시작한 第1次大戰前에 그 保有船舶數는 世界船舶 總噸數의 61%를 占하고 있었다. 그러나 既述한 바와 같이 英國은 戰時中 약 700萬톤의 商船을 잃었기 때문에 戰後는 우선 이의 補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形便이었다.

그러던차 마침 1920年에서 21年에 걸쳐 運賃의 騰貴가 있자 造船業界는 活氣를 띠게 된

(26) G. C. Allen, *British Industries*, p. 115.

다. 이에 따라 英國造船業界는 繁昌하기 시작하여 이 期間中에 外國으로부터의 發注가 40%를 占하는 정도가 됨으로서 戰前의 水準을 증가하였지만 餘他諸國의 造船業이 飛躍的인 發展을 하였기 때문에 世界建造船舶中에서의 英國造船業의 占有比는 戰前보다 낮아진다.

거기다 戰後暴이 사라지고 世界貿易의 不振과 더불어 世界船腹이 過剩狀態가 되자 運賃率의 低下에 따라 注文도 減少하게 된다. 이어 1927年 乃至 1930年의 世界貿易의 回復과 더불어 年平均造船噸數는 增加했으나 世界進水噸數中에서 英國造船業의 占有比는 低下했다. 즉 그것은 第一次大戰直前의 1913년에는 60%이던 것이 1929년에는 54.4%로 되고 1937년에는 34.2%가 되었다. 이에 는 두가지 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²⁷⁾

첫째는 世界造船界의 革命을 英國造船業이 따라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大戰前에도 諸外國 특히 「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는 內燃機에의 轉換이 試圖된 일이 있었는데 戰中 및 戰後의 燃料用炭의 코스트高때문에 補助燃料의 採用이 要求되고 있었다. 이 點時에 디젤엔진은 스페이스를 적게 잡을 뿐만 아니라 快速定期船에 燃料費가 低廉하다는 두가지 理由에서 造船界의 轉機를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英國에서는 燃料用炭이 豊富했기 때문에 船主들은 船舶의 改造에 着手하기를 躊躇했다. 그밖에도 英國의 船舶機關工場은 從來의 傳統에서 蒸汽機關만의 製造를 固守하고 또한 디젤엔진의 特許權이 外國에 獨占되어 있는 狀態였던 까닭으로 自然히 이의 製作은 造船費의 騰貴를 不可避하게 한 것이다.

둘째는 코스트高이다. 造船業一般에 대해서는 外國競爭의 壓力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지만 問題는 修理費에 있었다. 英國의 埠頭에서는 戰後 줄곧 造船勞動者의 高賃金 및 勞動組合運動으로 造成되는 不安때문에 많은 要修理船舶을 Rotherdam, Antwerp 및 Hamburg에 빼앗기게 되었다. 왜냐 하면 이들 港口에서는 修理費가 값싼 뿐만 아니라 作業도 迅速했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英國造船業은 항시 勞動組合들의 爭議에 의한 커다란 負擔을 지고 있었다. 즉 英國의 勞組는 元來 길드의인 craft union의 形態였으므로 勞動者의 職種에 따라 自己固有의 作業에만 限定코자 하는 主張이 서로 엇갈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섯가지의 勞動組合이 關與한다. 이런 狀況이므로 英國埠頭に 있어서의 船舶修理는 費用에서는 時間에 있어서든 다른 나라의 二倍를 要했다.⁽²⁸⁾

以上是 英國造船業의 世界에 있어서의 相對的 低下의 理由라 하겠으나 英國造船業은 특

(27) L. Jones, *Shipbuilding in Britain*, 1957, p. 64.

(28) Hord Aberconway, *The Basic Industries of Great Britain*, London, 1927, p. 351.

히 戰時부터는 絶對적으로도 不振을 免하지 못했다. 즉 英國의 商船進水噸數는 1913년에 193萬2,000톤이었던데 比하여 1933년에는 겨우 13萬3,000톤에 不遇했다. 물론 이 1933年은 世界造船界가 不況의 밑바닥을 헤매던 해였던 만큼 비단 英國뿐만 아니라 世界主要造船國家들의 進水噸數도 共通으로 激減하고 있다. 當時 이와 같은 英國을 包含하는 世界一般의 造船業界不振의 原因은 造船能力의 過剩에 있었다. 즉 一方에는 商船隊의 增加 및 大型化의 傾向이 있는 反面 他方에는 世界貿易의 萎縮에 의한 商船需要의 減少로 因하여 世界の 船腹이 絶對적으로 過剩狀態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事實에 直面하여 英國政府는 過剩設備整理를 目的으로 하여 1930년에 全國造船業保金會社를 設立했다. 여기에 英國造船會社의 大部分이 株主가 되고 1930年 11月 以後의 造船契約高 또는 販賣價格의 1%를 據出하기로 하고 이 據出金을 가지고 過剩設備의 買收와 廢棄에 充當하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1934年末까지 年間造船能力 약 100萬톤에 達하는 37個독크가 廢棄되었다. 한편 既存造船所의 事業振興을 위해서 同年 11월에 政府는 不定期航路補助計劃을 立案하고 船主에 대해서 補助金交付를 條件으로 「舊船舶의 解體와 新造船의 整備」를 指令하고 이에 의하여 新造船 1噸當 舊船舶 2噸씩 解體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부터는 造船業도 再軍備計劃의 一環으로서 急速히 活況을 띠게 되지만 英國造船業 그 自體가 內在하고 있는 諸難點이 除去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²⁹⁾

5. 新興諸產業——以上과 같이 鐵鋼業을 論외로 하면 當時까지 輸出의 基礎에 立脚하고 있던 舊產業은 大體로 不振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新興諸產業이 勃興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第一次大戰後의 英國의 產業構造는 新舊諸產業의 勃興과 衰退에 의하여 커다란 變貌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³⁰⁾

當時新興諸產業의 典型은 自動車工業과 電氣工業이었는데 이밖에도 一聯의 新興產業이 新規技術으로써 小規模나마 徐徐히 成長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의하여 繼續의인 技術改善이 이루어 지고 勞動配分의 變化를 惹起시켰으며 生産性의 向上이 促進되었다. 그리하여 1930年代中에 있어 製造工業의 1人當 生産性은 20%以上이나 向上되었다고 한다.⁽³¹⁾

그러나 이것을 過大評價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이들 新興諸產業에 있어서도 다른 工業國家들과 比較하면 新規技術의 採用에 뒤떨어지기 쉽고, 生産規模에 있어서도 劣勢여서 到底히 産業의 衰退를 카버할 정도는 못되었기 때문이다.

(29) S. Pollard, *op. cit.*, pp. 117—119.

(30) S. Pollard, *ibid.*, pp. 99—109.

(31) Youngson, *op. cit.*, p. 96.

3

1. 外國貿易——第1次大戰後에 英國이 經驗한 經濟衰退의 過程을 가장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은 外國貿易이다. 이미 上記한 바와 같은 傳統的인 重要産業의 缺陷으로 對外競爭力이 低下된 英國商品은 많은 海外販路를 잃었다. 더구나 이 輸出의 減退는 世界經濟恐慌의 激化와 더불어 그 度を 더해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戰前의 1913년에 英國의 對外輸出은 5億2,500萬파운드였는데 대하여 戰後는 그 以上の水準을 維持하여 1929년에는 7億2,900萬파운드였다. 그후 1932년에는 3億6,500萬파운드를 最低로 徐徐히 回復을 나타냈으나 끝내 戰前의 水準을 回復할 수는 없었다.

이보다 重要的 것은 世界輸出貿易上에 있어서의 英國의 share가 低下했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1913년에는 13.93%이던 것이 1929년에는 10.7%, 1937년에는 9.87%로 低下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美國의 그것은 各各 13.34%, 15.62%, 12.63%로 되어 있다. 즉 英國은 戰後 海外商品市場에 있어서의 霸權을 美國에 물려준 것이다. 더우기 그 輸出對象을 檢討해 보면 英國의 輸出貿易은 더욱 悲觀的이다. 그 理由는 英國은 當時 英聯邦에 대한 輸出伸長으로 餘他諸外國에의 輸出減退를 겨우 補充하는데 成功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29년에 있어 英國의 輸出總額中 聯邦에 대한 比率는 44.5%였으나 1937년에는 그것이 48.3%로 올랐다. 이에 反하여 餘他諸國에 대한 比率는 同期間中 55.5%에서 51.7%로 低下되어 있는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한때 英國이 「世界의 工場」으로서 獨占的 地位를 保持할 수 있었던 것은 時間的인 利益에 의한 바가 많았다. 그러므로 그 當然한 結果로서 獨逸 및 美國을 爲始한 後進諸國이 進歩된 生産組織과 生産技術을 가지고 英國의 競爭者로서 世界市場에 登場했을 때 가장 深刻한 打擊을 받은 것은 그 때까지 英國輸出貿易의 支柱를 이루고 있던 綿絲布, 石炭, 鐵鋼 및 船舶이었다. 이 점이 英國經濟에 있어 極히 重要하다는 것은 그것이 直接 英國의 國際收支惡化에 主因이 되었을 뿐 아니라 國內에서는 大量失業者의 造出에 크게 作用했기 때문이다. 그 一例를 石炭에서 본다면 英國의 輸出貿易과 國內失業者가 緊密한 因果關係에 있음이 明白해 진다. 즉 1913년에 있어서 英國의 石炭輸出高는 7,340萬톤이었는데 1929年은 6,030萬톤, 1937年은 4,060萬톤으로 漸次 減少하고 있는 것과 對應하여 炭鑛勞動就業者數도 各各 112萬7,890名에서 96萬9,766名, 86萬8,360名으로 減少하고 있으며 한편 이는 失業者가 그만큼 增大했음을 意味한다.⁽³²⁾

(32) S. Pollard, *op. cit.*, pp. 184-192.

第1次大戰後에 있어서 이와같은 輸出貿易의 不振과는 對照的으로 同期中 英國의 輸入은 오히려 增加한다. 元來 英國은 戰前부터 輸入超過國이었지만 戰後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外國貿易의 趨勢는 점점 入超額의 幅을 넓히게 되었다. 즉 英國의 入超額은 1913年の 2億 4,340萬파운드에서 1929年の 4億9,150萬파운드로, 1967년에는 5億640萬파운드로 增大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重大한 局面에 處하여 戰後 英國의 貿易政策을 特徵지은 것은 自由通商主義의 放棄와 保護貿易主義의 確立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英國은 1913年末에 金本位制를 離脫함으로써 파운드價는 自然價格의 水準으로 復歸했다. 그리하여 生産費의 切下를 通하여 英國의 輸出産業은 徐徐히 그 活氣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當時 이미 恐慌段階에 접어든 世界主要諸國은 그 保護貿易主義를 確立하고 있어서 稅障壁을 漸次 높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事態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英國도 진작부터 表面上으로 粉飾되어 있던 自由貿易의 假面을 벗어버리고 世界貿易競爭場에서 對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인데 이 點에 있어 1913年の Ottawa 協定이야말로 英國貿易政策史上 劃期的인 契機를 만들었다.⁽³³⁾

물론 그以前에도 英國에서는 保護關稅의 範圍가 徐徐히 擴大되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 第一步는 1931年 11月の 非常輸入法으로서 이에 의해 通商相은 不當한 輸入增大를 阻止하기 위하여 100%以下의 關稅를 課하는 權限을 賦與받았다. 이어 翌年 2月の 輸入關稅法에 의해서는 國內産業의 保護, 英聯邦에 대한 特惠, 互惠協定, 또는 報復등에 관한 原則이 規定되었다. 그런데 全面的인 保護貿易政策에의 180度轉換이 이루어진 것은 同年 여름에 맺어진 Ottawa 協定에 의해서이다. 이 Ottawa 協定은 「協定國 相互間에 關稅障壁을 낮추거나 또는 이를 除去함으로써 英帝國內 各國間의 通商을 圓滑히 하고 그 結果로서 이들 地域에 屬하는 國民의 購買力 向上을 期함으로써 世界貿易을 促進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問題는 이 Ottawa 協定에 의한 英帝國 特惠制度의 效果인데 大體的으로 보면 그것은 聯邦內의 通商의 自由를 大幅 回復하고 諸他國에 대하여는 英國關稅率을 引上함으로써 通商을 英帝國內部의 去來에 어느 정도 限定하는데 成功을 거두었다. 그러나 大體로는 그것이 自治領의 犧牲을 通해서 英本國에 어느 정도의 利益을 가져온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 理由는 自治領에서 英本國에 許容한 特權은 極히 컸는데 反하여 自治領이 享受한

(33) S. Pollard, *ibid.*, pp. 192-200.

利益은 근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Ottawa 協定の 結果로 Sterling 地域에 있어서의 英國貿易이 振興된 것은 事實이다. 물론 이것은 自治領 其他의 屬領에 대한 英國輸出貿易이 總額에서 增加한 것과는 別個로 다만 英國 輸出貿易에 있어서 Sterling 地域의 重要性이 높아졌음을 意味하는데 그친다.

如何든 Ottawa 協定은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요컨대 世界經濟에 있어 自由市場을 封鎖市場으로 轉換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經濟 bloc 間의 對立激化를 助長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事情에서 英國은 다시 1933年以後 國定關稅主義를 放棄하고 互惠通商主義를 採用하게 되었다. 그 協定內容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느 경우든 「自國에서 購入해 주는 國家로부터 購買함」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므로 自然스런 多角貿易으로부터의 離反을 뜻한다. 즉 그것은 Ottawa 協定과 더불어 「첫째로 英國, 둘째로 英帝國, 마지막으로 餘他諸外國」의 原則을 確立하는 結果가 되었다.

以上과 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후의 英國貿易의 實際의 發展을 보면 그 어느 것도 英國의 外國貿易上の 苦惱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 海外投資——第1次大戰의 結果 그때까지 債權國이던 「유럽」諸國은 大部分 債務國으로 轉換되었는데도 英國만은 이력저력 債權國으로서의 地位를 保持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미 世界의 銀行으로서의 地位는 美國에 빼앗기고 있었다.

1914년까지 美國은 大規模의 海外投資를 하는 일 없이도 債務國의 立場에 있었는데 大戰中에 美國이 諸外國에 貸與한 金額이 약 105億7,851萬달러에 達한 反面, 主로 「유럽」諸國에 있는 약 20億달러의 달러證券을 사들였기 때문에 美國은 그때까지의 債務國에서 一躍 債權國으로 轉換했다. 이에 反하여 英國은 戰時中에 軍需資材購入을 위해서 主로 美國에서 證券을 賣却했기 때문에 海外投資는 激減했다. 이로서 喪失된 海外投資는 약 8億5,000萬파운드에 달한다. 이와같이 하여 海外投資의 分野에 있어서도 英美는 그 地位를 바꾸게 되었다.

물론 戰後에 있어서도 每年 新規 海外投資가 繼續的으로 이루어져 名目價值上으로는 거의 戰前의 水準에 達했으나 그것도 1929年을 頂點으로 漸減의 傾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는 무엇에 基因된 것인가?

戰時中에는 新規 海外投資는 政府의 許可가 있는 경우를 例外로 一般的으로 禁止되고 있었으나 戰後에도 非公式的이지만 海外投資에 대해서는 消極的인 態度가 取해지고 있었다. 元來 이러한 政策이 無批判的으로 施行된 것은 물론 아니다. 지금 參考삼아 海外投資에 관한 當時의 英國 國內輿論을 要約해 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묶어진다.

첫째는 正統的인 自由貿易의 見地에 立脚한 見解이다. 그것은 大體로 City(「런던」의 金融界)에 의해서 代表되며 「런던」金融機構은 가장 重要的 利殖의 源泉이며 資本輸出은 直接間接으로 商品輸出을 促進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둘째는 帝國主義的 保守的 見解로서 保守黨 및 産業團體間에 支配的이었다. 이에 의하면 資本輸出이 商品輸出을 隨伴하는 限에 있어서는 前者에 一致하지만 그 根據는 同一하지 않다. 즉 資本輸出은 計劃的으로 商品輸出 그 自體를 目的으로 行해져야 하며 英帝國內에서의 資本輸出을 優先시켜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에 대하여 第三의 經濟國民主義的 見解는 一般的으로 海外投資의 危險의 增大, 그리고 그로 因한 國際的 信賴의 缺如 및 國內市場輕視에 대한 反省이라는 세가지 點에서 海外投資에 反對한다. 當時 自由黨의 思想을 支持하는 一聯의 經濟團體나 知識層이 이 見解를 取했으며 Keynes 같은 이도 그 代表의 人物이었다.⁽³⁴⁾

以上の 세가지 見解中 前二者는 같이 資本輸出을 商品輸出과 結合시키고 있는 點에서 共通이며 事實上으로는 過去의 英國海外投資가 그대였다는 것은 Macmillan 報告도 明白히 認定하고 있는 바이다.⁽³⁵⁾ 그런데 第1次大戰후의 世界情勢는 第三의 見解를 正當化하는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다. 破壞的인 戰爭의 結果로서 參戰諸國에 일어난 國內革命, 國際的 政治不安 그리고 未曾有의 極甚한 인플레이션의 進行, 債權國의 金本位停止, 平價切下에 의한 對外債權의 減價 등 國際的 信賴를 잃게하는 諸要因이 發生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諸要因以上으로 英國海外投資의 不振을 가져온 것은 海外投資의 源泉인 剩餘資本이 缺乏된데 있었다.

資本市場의 狀態에서 新規投資가 許容되느냐의 與否는 大體로는 提供된 證券類의 額과 國民貯蓄額과의 關係에 의해서 左右되는 것인데⁽³⁶⁾ 英國의 國民貯蓄은 戰後 減少한 것이다. 즉 어느 報告에 의하면 1913年과 1924—25年의 國民貯蓄을 比較하면 各已 17億5,000萬과 20億 내지 25億달러로서 名目價值로서는 後者가 龍大하지만 物價水準의 變動을 考慮하면 後者의 購買力은 그 名目價值의 4分の 3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³⁷⁾

이와 같은 戰後의 國民貯蓄의 減少는 주로 既述한 바와 같은 戰後의 産業 및 貿易의 不振에 基因된 國民所得의 減少에 의한 것이다. 즉 Colin Clark의 計算에 의하면 英國國民

(34) T.E. Gregory, *Foreign Investment and British Public Opinion, Lectures of the Harris Foundation*, London, 1928, pp. 79—100.

(35)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e and Industry*, London, 1931, p. 79.

(36) Gregory, *op. cit.*, p. 145.

(37) *Report of the Committee on National Debt and Taxation*, p. 17.

所得은 1924년이 39億7,700萬파운드, 1929년이 43億9,100萬파운드, 1931년이 38億9,000萬 파운드로 되어 있다. 國民所得의 이와 같은 絶對額의 減少는 비단 一般의 景氣의 影響 뿐만 아니라 既述한 構造變化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즉 第1次大戰은 勞動階級에 有利하도록 國民所得構成을 變化시켰다. 그러나 勞動者階級の 貯蓄增加는 中間階級 및 大所得者階級の 貯蓄能力의 減退를 補充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因해서 發生된 英國의 資本不足은 「런던」資本市場의 「뉴욕」資本市場과의 競爭을 不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왜냐 하면 資本不足은 當然히 金利를 높였기 때문이다. 즉 1922年 내지 29年에 관해서 보면 每年 美國側이 英國에 比하여 0.5% 내지 1.15%정도 低利였다. 지금 또 하나의 戰後 海外投資가 不振하게 된 原因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一般으로 外國證券과 國內 一流證券과의 사이의 利息差가 縮少되었다는 點이다. 이때문에 投資家들은 危險이 큰 海外投資에 熱意가 식어간 것이다.

以上 지적한 諸原因이 累積되어 戰後英國의 海外投資가 不振하게 되었으며 그 收入도 減少시키게 된 것이다. 이를 商務省의 推計에 의하면 1913年の 2億1,000萬파운드에서 1929年の 2億5,000萬파운드를 頂點으로 그후부터는 어느해나 2億파운드以下の 수준을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3. 海運——앞서 본 바와 같이 英國은 戰時中에 그 保有船舶의 40%나 戰爭에 의해서 直接喪失했으나 重點의인 新造船의 補充에 의해서 戰爭直後는 不過 300萬톤의 減少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英國海運의 世界船舶界에 있어서의 絶對優位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戰時中에 美國 및 日本의 所有船舶이 增加했기 때문이다. 즉 世界 商船界에 있어 英國地位를 그 所有船舶의 占有比에서 보면 1913年の 그것이 46.5%이던 것이 1929년에는 33%, 1938년에는 39%로 急激히 低下되고 있다. 또한 英國商船造船噸數의 世界에서 占하는 比率도 1929年の 54.5%에서 1938년에는 34%로 低下했다. 이 사실은 이미 본 바와 같이 英國의 造船코스트高에 基因된 것인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海運業自體에도 不利한 影響을 미친 것은 勿論이다. 더구나 戰後의 世界商船界에 나타난 現象은 貿易不振과 船舶增加에 의한 船腹의 過剩이다. 이 面은 直接 運賃의 低下로서 나타났다. 즉 不定期船 運賃은 1913年 平均을 100으로 하면 1920年 3月の 602에서 1921年 11月에는 141로 거의 80%나 下落하였고 1929년에는 106.3, 1933년에는 實로 77.5로 暴落하였다.

이러한 海運恐慌의 打撃이 最大의 海運國 英國에서 가장 深刻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美國, 日本, 伊太利 및 佛蘭西 등의 諸國에서는 國家의 保護가 加해졌음

에도 不拘하고 英國에서는 그러한 經驗이 없었으므로 英國海運業은 極甚한 苦痛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은 運賃收入의 減少로 直接 나타난다. 즉 1928年의 運賃收入은 1億3,000萬파운드이던 것이 1931년에는 7,300萬파운드로 또 1933년에는 5,900萬파운드로 거의 半減하고 있다.

이처럼 英國에 慢性的인 輸入超過를 카버할 2大項目인 海外投資收入과 海運收入이 다같이 戰後에 減少한 결과 英國의 國際收支도 當然히 惡化한다. 즉 1920年 내지 37年의 17年 間에 國際收支赤字를 낸 해는 1926年, 1931年, 1932年, 1934年, 1936年, 1937年의 6個年 間이다. 따라서 1931年以後는 慢性的인 赤字에 빠져 있었다고 보아도 無妨한 것이다.⁽³⁸⁾

4

以上에서 第1次大戰後에 있어서의 英國經濟衰退의 樣相과 그 歷史的 展開過程을 概觀했는데 André Siegfried는 그의 著作『20世紀英國의 危機』⁽³⁹⁾ 속에서 이 問題를 銳利하게 다루어 注目을 끌고 있으므로 약간의 重複을 무릅쓰고 그 要點을 훑어 보기로 한다.

Siegfried는 英國産業의 不振原因을 무엇보다도 그 生産費高에서 求하고 있는데 이 生産費高의 最大의 原因은 設備近代化의 遲滯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設備近代化가 뒤떨어지는 原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指摘하고 있다. 英國의 企業家は 好況期에 舊式設備를 가지고도 充分히 利潤을 올리는 慣習이 붙어 있기 때문에 設備改善의 必要를 느낄 수가 없었다. 더구나 一旦 不況에 直面하게 되면 英國産業의 將來에 대한 自信을 잃고 金融業者의 慫慂을 듣고 海外投資가 보다 有望하다는 생각에 기울어져 一部 産業에 있어서는 資金調達이 困難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英國人은 義務感이 強하며 誠實하고 寬大하기 때문에 이런 性向自體 때문에도 産業의 社會的 側面에 크게 作用하게 된다. 가령 工場內의 厚生の 施設은 徹底하며 俱樂部는 快適하게 차려 놓는다. 企業主는 勞動者의 氣分을 잘 理解하며 그들의 餘暇를 잘 管理한다. 그리고 過去 10年間에 勞動者住宅建設을 위해 非常한 努力을 傾注했다. 그러나 이러한 經費支出이 膨大해 짐으로써 生産原價를 壓迫하는 것이다.

다음에 Siegfried는 이 問題와 關聯하여 英國의 雇傭主와 勞動者의 態度를 分析하고 있다. 過去 英國의 榮光을 만들어 낸 것은 上流級出身인 政治家와 中間階級出身인 實業家로 構成되어 있던 aristocracy이다. 이들 두 階級の 協력이 모든 障害를 克服하여 英國의 榮光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産業人들이 一旦 富裕해지자 그 子弟를 實業界에 보내는

(38) S. Pollard, *op. cit.*, pp. 54-59.

(39) A. Siegfried, *op. cit.*

대신 社會에 出世시키기 위해서 政治家養成을 위한 學校나 大學에 보낸다. 그리하여 結局 그들은 既往에 獲得한 榮譽에 滿足하게 되어 進步的 精神은 죽고 保守的인 生活로 退化되어 버리는 것이다.⁽⁴⁰⁾ 그뿐만 아니라 平均的 實業家들은 階級的 偏見을 남김없이 具備하고 있는 中間階級이다. 그들은 技術보다도 經驗과 訓練을 尊重한다는 古來로부터의 英國固有의 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人間에 대한 評價의 基準을 技術能力은 姑捨하고 科學보다도 品性에 둔다. 이리하여 合理化의 觀念은 그들과 因緣이 없는 것이 되고 活力을 喪失해 갔다.

물론 Siegfried 는 이것이 英國企業家の 全部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의하면 戰爭이 이와같은 事情을 어느정도 變更시켰다. 즉 이제는 支配階級の 子弟도 實業界에 들어가게 되었고 Cambridge 大學도 技術者를 輩出하고 있으며 地方新設大學出身者들은 近代思想의 訓練을 받고 徐徐히 그 活動範圍를 넓히고 있다.⁽⁴¹⁾ 萬一 現在의 英國産業支配者의 子弟가 이들 新技術者에로의 轉換이 完全히 이루어진다면 英國産業의 將來도 大端히 밝다 하겠으나 이 동안에 英國産業은 獨逸, 美國, 佛蘭西등에게 相當한 距離를 두고 뒤떨어지고 말았으니 이러한 變轉조차 이제는 늦어버렸다고 Siegfried 는 結論짓고 있다.

勞働者에 관해서도 Siegfried 는 英國勞働者가 正直 誠實 氣品있는 生活態度, 熟練 등 우수한 素質을 가지고는 있으나 現在처럼 産業이 沈滯되어 있는 狀態로서는 到底히 支拂不可能한 高賃金水準을 固執하고 있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1914年 내지 1920年 사이에 賃金水準은 指數로 100에서 170 으로 騰貴하고 1930년에는 178로서 戰後暴期에서 거의 下落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사이에 都賣物價는 325에서 122로, 小賣物價는 275에서 154로 低下되어 있으니 實質賃金은 1920年の 最高水準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過去 10年間 不況과 失業에도 不拘하고 英國勞働者는 이처럼 有利한 賃金水準을 維持할 수 있었으며 今後도 이를 固守하려고 한다. 勿論 輸出産業勞働者들은 國際競爭力의 壓力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國內用 産業에 比하면 多少 低賃金인 것은 事實이지만 全體로서의 平均賃金騰勢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1927年 勞働者發表의 資料에 의해서 英國의 賃金を 餘他國家의 그것과 比較하면 英國을 100으로 할 때 美國 175, 獨逸 65—70 佛蘭西 55—60, 伊太利 45—50으로서 美國을 除外하고 英國이 가장 높다.

(40) 英國企業家の 保守的 經營態度에 관해서는 다음 諸著를 參考. S.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1965, Chapt. 4.; APEP Report, *Attitudes in British Management*, 1965; Reinhard Bendix,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1956, Part One, 2.

(41) Sir Eric Ashly, *Technology and the Academics, An Essay on Universiti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London, 1958, Ⅱ.

이와 같은 賃金水準의 向上은 必然的으로 一般生活水準의 向上이 되어 生産物單位當 賃金費를 上昇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高賃金이 失業의 直接의 原因도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英國에서는 戰時的 賃金騰貴가 그대로 維持되어 物價의 低落에 即應해서 低下된 일이 없었으나 實質賃金의 上昇은 그 反面에 失業을 隨伴하고 있었다. 換言하면 英國勞動組合은 低賃金의 就業보다도 高賃金의 失業을 選好했으니 失業은 原因이 아니라 結果인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失業은 失業手當의 增大를 不可避하게 한다. 英國의 失業保險制度는 1912년에 實施되었는데 當時는 그 適用範圍가 限定되어 있고 給付額이 적었을 뿐 아니라 失業者가 少數였으므로 失業手當이 큰 財政負擔이 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그런데 戰後는 事情이 一變한다. 1920年以後 失業手當은 家庭使用인과 農業勞動者를 例外로 하고 모든 勞動者에게 支給하게 되었다. 그 給付額도 戰前의 週 7실링에 대하여 戰後에는 既婚男子 17실링에다 妻 9실링, 子女 1人當 2실링이 되었으므로 子女 5人的 경우 週 36실링의 給付를 받게 된다. 더구나 이만한 失業手當을 받는 失業者數는 1921年以後 每年 100萬名以上이었으니 그것이 公共財政의 커다란 負擔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Siegfried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財政負擔의 增大가 가장 重大한 側面은 아니고 危險한 것은 그것이 勞動者의 勤勞意慾을 沮害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下級勞動者의 경우는 종종 正規의 就業收入보다도 失業手當이 많은 경우조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事情下에서는 長期에 걸친 不況期에 있어서도 賃金水準은 低下하는 일이 없다. 더구나 美國에서는 高賃金은 大量生産技術에 의해서 克服되지만 英國에서는 이러한 事實도 없다. 그리하여 이는 英國의 海外競爭力을 低下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以上에서 指摘한 要因들은 英國自身の 힘으로도 治癒할 수 있는 生産費騰貴의 諸要因이다. 이에 대하여 Siegfried는 英國自身에 의해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外的諸原因으로서 20世紀中에 생긴 工業生産條件의 變化를 指摘하고 있다. 그 첫째는 世界動力資源의 變化이며 둘째의 生産條件變化는 大量生産이 不可避해 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가령 第二의 變化를 보면 아래와 같다. Siegfried에 의하면 美國을 爲始한 英國의 競爭相對國에서 生産費가 낮은 主原因은 國內消費用的 商品이 大量生産된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國內需要를 充足시키고난 剩餘分이 海外에 덤핑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를 Ford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英國에는 이와 같은 大量生産의 條件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다.

生産費가 높은 또하나의 外的原因은 顧客의 變化이다. 즉 消費者의 趣味나 要求의 變化

에 수반되는 生産方法뿐만 아니라 商品의 種類 및 品質의 變化를 말한다. 이것이 重視되는 理由의 하나도 亦是 美國에 있어서의 規格化商品의 生産에 있다고 보겠다. 왜냐 하면 그것은 손쉽게 消費者의 嗜好變化에 適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Siegfried가 보는 바에 의하면 現在의 需要構造의 큰 變化는 食糧 및 平常衣服의 需要減少가 있는 대신 奢侈品의 需要增加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纖維에 관해서 보더라도 綿대신 絹 또는 그 代用品을 選好하게 되면서 英國綿業은 衰退하는 것이다. 1次大戰後 이제 世界의 需要는 自動車, 電蓄, 라디오, 電氣器具, 電話, 카메라등에 대한 大量需要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美國産業은 제대로 여기에 適應할 수 있도록 合理的으로 組織되고 裝備되어 있었으나 元來 그 輸出과 繁榮이 石炭, 鐵鋼, 綿絲布, 毛織物 및 麻織物에 依存하던 英國은 이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生産領域에서는 英國이 극히 優秀한 技術을 保有하고 있었지만 벌써 이는 時代의 主導産業이 아닌 것이다.⁽⁴²⁾

끝으로 Siegfried가 보는 바에 의하면 英國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沮害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要因은 社會保障制度이다. 그에 의하면 英國人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基礎는 國富의 참다운 增加가 아니라 國民所得의 새로운 分配制度이다. 實로 數百萬파운드가 失業手當, 各種年金, 救貧費로 支出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國民所得分配가 國富의 增加와 똑같은 效果를 消費에 미치는 것으로 長期에 걸친 不況과 大量失業의 存在에도 不拘하고 大衆에 의한 購買力을 減少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國民大衆의 生活水準改善은 國富의 增加에 의한 것이 아니라 所得再分配에 의한 高賃金의 結果이므로 그것은 必然의으로 資本利潤의 低下를 가져 오고 한편으로는 社會의 서비스는 産業 및 相續財産의 重課가 된다는 缺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³⁾ (以下次號掲載豫定)

[서울大學校商科大學
筆者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42) A. Siegfried, *op. cit.*, pp 43—77.

(43) A. Siegfried, *ibid.*, pp. 84—5.